6·25 60주년 참전 노병들의 눈물

"청년들 전쟁 참상 잊지 말아야"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60년 전 그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24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중흥동 '6·25 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사무실. 33㎡의 공간에 백발이 성성한 10여명의 노병(老兵)이 속속 모여들었다.

노병들은 매일 이 곳에서 만나 6·25 당시의 경험담을 나누곤 한다. 비록 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들에게는 생사를 함께 한 전우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 자체가 생활의 한부분이다.

이날 노병들은 후손들에게 6·25의 역사를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6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총알이 빗발치고 전우가 쓰러졌던 전쟁터의 참혹한 기억이다.

6·25 당시 2사단 소속으로 참전한 유판선(84·광주시 북구 충효동)옹은 1952년 3월에 벌어진 강원도 오성산 전투를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그는 당시 후임병 8명을 이끌고 오성산에 올랐지만, 3명 만이 복귀할 수 있었다. 당시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이 분대원 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2사단 17연대 2대대 6중대 3소대 1분대장." 아직도 6·25 당시 소속을 정확히 기억하는 유옹은 숨진 전우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은 '덤으로 사는 목숨'이라고 했다.

노병들에게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6·25 당시의 애국심과 젊은 혈기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열정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은 자신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춧돌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한없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가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아쉬움은 있다. 요즘 청년들은 6·25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노병들은 후손들이 6·25를 배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래(81·북구 중흥동)옹은 "요즘 사람들은 6·25를 잘 모른다"며 "많이 배웠다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6·25 참전유공자'라고 말해도 버스비를 내라는 기사들도 많다"고 아쉬워했다.

김창기(84·북구 우산동)옹은 "전쟁 때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이틀간 논에 쓰러져 있었어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며 "젊은이들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어떻게 지켜진 것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4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6·25 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사무실에서 유판선(84·광주시 북구 충효동·왼쪽에서 두번째)옹이 6·25 당시 경험담을 꺼내자 박근용(83·북구 동림동·오른쪽에서 두번째)옹이 당시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학생 7.4% "6·25 발생 연도 몰라요"

일부 대학생들은 한국전쟁이 몇년도에 발발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4%(32명)가 한국전쟁이 발생한 연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97.9%)은 남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휴전 중'이라고 말했지만 2.1%(9명)는 '전쟁이 끝난 상태'로 여기고 있었다.

전쟁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주체에 대해서는 67.8%가 '북한 또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라고 응답했고, 15.9%는 '미국과 소련 모두'라고 보고 있었다. 또 남북 통일 가능성이 30% 이하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16강전 빗속 거리응원

장맛비 시작 … 광주·전남 28일까지 비

25일 낮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28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가 열리는 26일 밤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야외 응원에 불편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25일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다"고 24일 밝혔다.

남아공 월드컵 한국-우루과이전이 열리는 26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지만 오후 3시를 기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그러나 밤과 새벽 사이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응원전에 나서는 시민들은 대비하는 것이 좋다.

25일 낮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광주·전남에 20~60㎜의 비가 내린 뒤 잠시 개겠으나, 27일 새벽에 다시 비가 내려 28일 오전까지 전날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에 동반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산사태나 축대붕괴 등 비로 인한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돌풍이 불고 오후부터 1.5~2.5m로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무등산 서석대 이름표 달았다

정상 1100m 지점에 푯돌

무등산의 명품 주상절리 서석대를 알리는 푯돌이 설치됐다.

24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서석대 정상 1100m 지점에 높이 150㎝, 폭 80㎝, 두께 30㎝, 무게 1.5t의 표석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석대 주변 너덜겅에서 구한 푯돌 앞면에는 '無等山 瑞石臺(무등산 서석대)'라는 글씨와 함께 서석대 정상의 높이가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광주의 氣像(기상)이 곳에서 發源(발원)되다', '이천십년' 이라는 글귀가 담겨 있다. 표석의 정면은 월출산을 향하고 있으며, 뒷면은 무등산 정상인 천황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표석의 글은 지역 서예의 대가 학정 이돈홍 선생이 맡았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장소임에도 불구, 타지역 명산과 달리 무등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 푯돌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표석은 광주 시내에서 제작돼 차량을 이용, 장불재로 이동된 뒤 산림청 헬리콥터로 서석대까지 옮겨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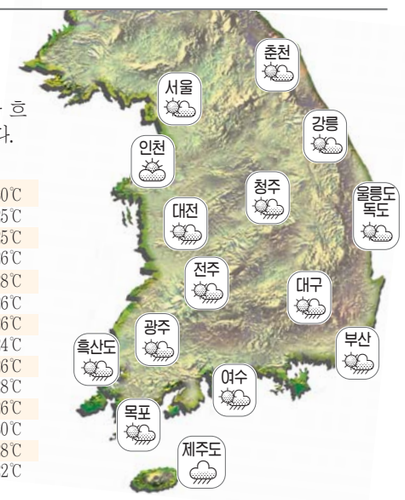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9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18시 58분 / 달짐 03시 50분

우산 챙기세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광 주	차차흐려져비	22/30℃
목 포	차차흐려져비	19/25℃
여 수	차차흐려져비	20/25℃
완 도	차차흐려져비	19/26℃
구 례	차차흐려져비	20/28℃
해 남	차차흐려져비	19/26℃
장 흥	차차흐려져비	19/26℃
고 흥	차차흐려져비	18/24℃
순 천	차차흐려져비	20/26℃
영 광	차차흐려져비	18/28℃
진 도	차차흐려져비	19/26℃
전 주	차차흐려져비	19/30℃
남 원	차차흐려져비	17/28℃
흑산도	차차흐려져비	18/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경고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동~남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1:24 13:11	06:42 18:35
여수	08:01 20:54	02:16 14: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1(목)
날 씨						
최저/최고	22/26	22/28	22/28	22/30	22/31	22/31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 찾습니다"

보훈처 7월2일까지 공모

국가보훈처가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직 공모에 나섰다.

24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등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2일 모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지원자 접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관리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임 인선작업이 제때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05년 9월 개방형 직위공모제 시행 이후 고(故) 박경순 소장 타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모 절차를 밟았으나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관련법에 따라 내부직원을 소장(임기 1년)으로 발령내는 등 진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5·18 민중항쟁에 대한 전문성이나 변화관리능력 등을 갖춘 인물이 적임이라고 여기면서도 보훈처와 5월 관련단체가 서로 다른 인사를 선호한 점도 공모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은 김명한(54) 소장이 맡고 있다. 지난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공모에 나섰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김 소장이 다시 맡게 됐다. /이종행기자 golee@